

# 미국 치과 Implant 학회(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참가보고

-1990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부교수 양 재 호

미국 뉴올리언즈 웨라톤 호텔에서 개최된 미국 치과 임플란트 학회(AAID)에서 논문 발표 및 학회참석을 위해 9월 30일 출국하였다.

금년 2월에 미국 교합조정 학회(AES), 미국 금관가공의치학회(AACB), Chicago midwinter meeting 기자재전시, 4월에 일본 나고야 국제 임플란트심포지움(논문발표), 5월에 일본 보철치과학회의 참석에 이어 금년에 마지막으로 본인의 임플란트 조직반응에 관한 논문발표 및 학회참관차 참석하였다.

본인은 미국에서 1년 3개월간 체재하면서도 미국에서 가장 낭만적인 프랑스풍의 도시인 뉴올리언즈를 가보지 못했었다.

본학회 참가를 위해 7월에 연제를 제출하고 10회에 걸쳐 AAID Program Chairman인 Duke Heller등과 국제전화로 등록안내, 초청장, 연제발표 등에 관한 심야국제전화를 했

었다. 필자는 여비의 일부로 김명국 학장님으로부터 치과대학 동창회 보조금을 받아 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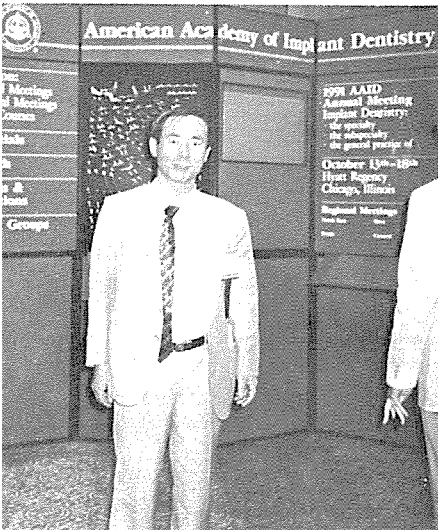
먼저 1990년 9월 30일 3시 45분 Northwest로 김포를 출발하여 미국 LA, Memphis를 거쳐 뉴올리언즈공항에 밤 9시에 도착하였다.

호텔예약도 미리 1개월전에 예약을 했다. 값싸고 학회장과 가까운 호텔(La Salle)을 겨우 알아서 40달러에 투숙하였다.

첫날은 등록을 하고 Supporting member가 되었다.

한가지 흥미있는 것은 등록금이 \$650에서 \$100까지 다양하며 처음 참가자는 \$100을 공제해 주는 특이한 제도가 있었다. 학회 첫날은 주로 각종 임플란트의 시술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임플란트의 미래와 최근형 Impliant등에 대한 Slide강연이 있었다.

둘째날은 우리가 잘 아는 Linkow의 강의가 있었는데



AAID 학회장 입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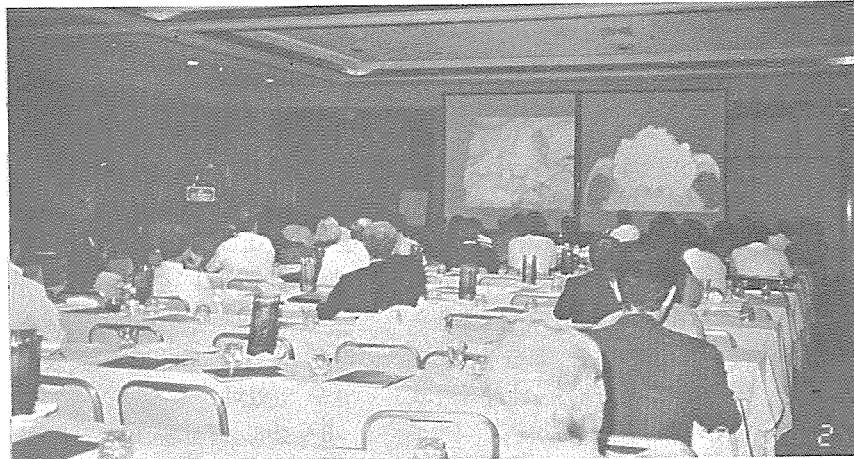
“...우리가 잘 아는 Linkow의 강의를 있었는데 Blade implant를 17년간 비교해 왔지만 X-ray상으로 건전한 예를 보여주었고 특히 조직학적 소견이 매우 우수해 거의 섬유성 조직의 개재없이 골과 매우 우수한 유착양상을 보이고 Osseointegration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의 특유의 정력적이고 매우 자신있고 확신을 주는 강의를 했었다...”

Blade implant를 17년간 비교해 왔지만 X-ray상으로 건전한 예를 보여주었고 특히 조직학적 소견이 매우 우수해 거의 섬유성 조직의 개재없이 골과 매우 우수한 유착양상을 보이고 Osseointegration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의 특유의 정력적이고 매우 자신있고 확신을 주는 강의를 했었다. (84년에 그의 진료실을 Dr.Schnitman과 찾을 때도 그랬지만)

또한 하바드대학의 Dr. Schnitman은 인간실험 결과를 발표했고 그리고 저녁에는 외국인을 위한 Bradley 회장의 리셉션이 있었다.

세째날(수요일)은 나의 친구이자 Implant과의 후배인 Dr.Peter Woehrl이 5년간의 Program을 마치고 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Blade implant도 Two-stage인 경우에는 Osseointegration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그 밖에도 Dr.Niznick의 발



▲학회장

표등 많은 연제가 두 방에서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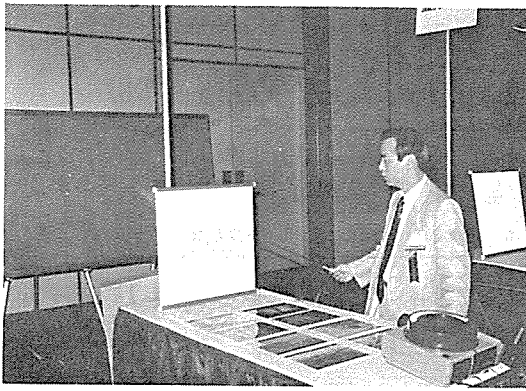
특히 각종 Implant의 표면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기자재 전시가 있었고 여기서 필자는 Stei-oss에 대한 모형 실습을 습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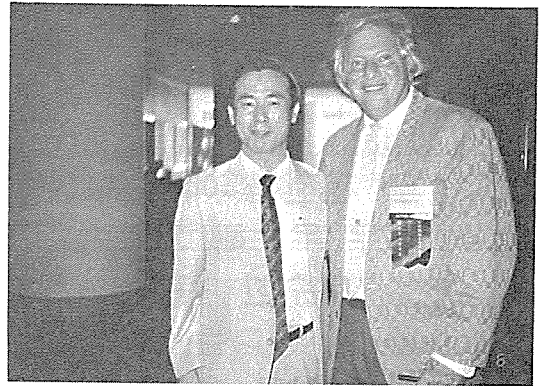
지난번 일본보철치과학회에서는 Branemark implant를 6개 식립했었다. (Janson의 배려로). 이런것이 학회참석시 수천불의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

고 가장 중요한 모형실습을 직접할 수 있다는 매우 유익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Doctor를 위한 Participation course를 만들어 재료상회에서 직접나와 각 교수나 연자가 Implant system중 한개씩을 맡아 직접 설명하고 실습을 도와주었다. 예를 들면 Daniel Patrick은 Core-Vent, Weiss는 Blade implant, Jack Hahn은 Steri-oss를 직접 설명했다. 또한



▲Table Clinic 발표장



▲Dr.Charles Weiss와 함께

Stryker라는 Screw type의 임플란트도 소개되었다.

수요일 저녁에는 River boat Cruise라는 것이 있어 대형 유람선을 타고 저녁식사를 하고 춤추는 코스가 학회비에 포함되어 있었다. 수많은 참가자 부부들이 재즈연주에 맞춰 호텔에서 부터 걸어서 약 20분간 미시시피 강가로 가는도중 걸가는 사람도 덩달아 춤을추고 흥겨워 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미국인들은 낙천적이고 좋은 사람들이다.

목요일 오전엔 골이식 재료와 술식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목요일 점심시간을 웨라톤 건너편 매리오프 호텔에서 Gershkoff award 시상식이 있었는데 매우 흥미있는 것은 수상자(Arther Ashman)가 무려 \$100만을 기증하였다. 그 밖에 Carl Misch의 Sinus lift에 대한 강의가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목요일 오후에 골막하 Implant에 대한 시술방법(편측, 상악, 하악과)이 소개되었다.

CT-SCAN을 이용한 방법등이 소개되었다. 금요일엔 유료코스가 있었다. 필자는 큰 기대를 갖고 Del Dine의 4시간짜리 보철기공 과정을 들었는데 특이할만한 것은 없었고 UCLA abutment에 관한 소개가 있었다. 금요일 오후에는 보험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필자는 편지나 생일엽서 선물까지 주고 환자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3시경에 택시를 타고 배창 대한치과 임프란트학회 부회장과 함께 미국 Louisiana State University 치과대학을 방문하였다. 학장실의 비서가 너무 친절히 안내해 주었다. 보철과와 기타과를 보고 치료실 등을 둘러보고 나왔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실내체육관인 Superdome을 돌아보았다.

개인방이 있을정도로 큰곳으로 guide를 받아 둘러보아야 한다. Super ball경기가 유명한 곳이다.

저녁엔 New Orelans의 필수

관광지인 Burbon Street를 걸어 보았다. 프랑스식 목조 건물에 카페가 있고 재즈로 유명한 곳으로 좁은길안에 재즈연주와 댄스를 추는것을 보고 역시 낭만적인 도시라고 느꼈다. 차가 안다니고 길엔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 명동길 같은 곳이나 냄새가 좋지 않았다. 저녁에는 가장 큰 모임인 회장만찬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회복으로 정장을 하고 부부동반으로 참가하고 신입회원에 대한 환영식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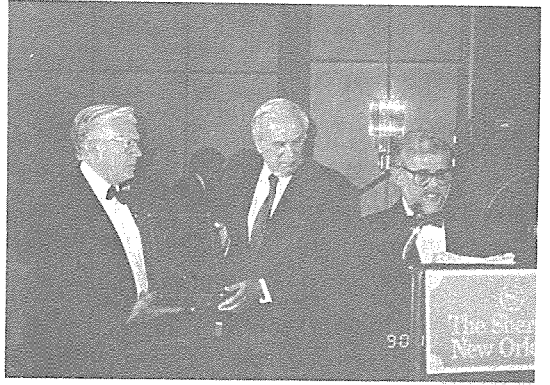
이날 AAID창립자의 한사람인 Isiah Lew를 기념하는 학술대상(Isiah Lew Award)은 필자를 하버드 대학에 초청해준 전 하버드 치대학장 Dr.Paul Goldhaber가 수상했다.

나는 이날 나의 스승이었던 Dr.Schnitman 부부와 옛날 1985년부터 잘 알고 지냈던 Dean Goldhaber 사모님과도 만나 매우 반가워 했다.

사실 Goldhaber의 부인은 85년에 나에게 꼭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다. 자기 친척이



▲기자재 전시장에서 모형실습



▲하버드대 치대 전학장 Dr. Goldhaber의 수상장면

한국에 있다고 했다. Dr. Schnitman은 수상 배경 설명을 했다.

Goldhaber는 세계에서 최초로 치과대학에 임플란트를 창설해 주었고, Harvard와 NIH가 공동 주최한 유명한 Implant에 대한 Harvard-NIH Consensus Conference를 개최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뒤로도 1985년부터 Harvard Implant Seminar를 개최하게 해주었다는 큰 업적을 인정 받아 이번에 학술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라고 Dr. Schnitman은 소개했다. 또한 자랑스러운것은 부회장 Dr. Schnitman이 이번에 미국 임플란트학회 차기회장(President-elect)에 선출된 것이었다. 부회장이 반드시 차기회장으로 안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당선되어 기뻐다.

드디어 마지막 날(토요일) 몇일간 밤잠을 설치고 초조히 기다렸던 나의 발표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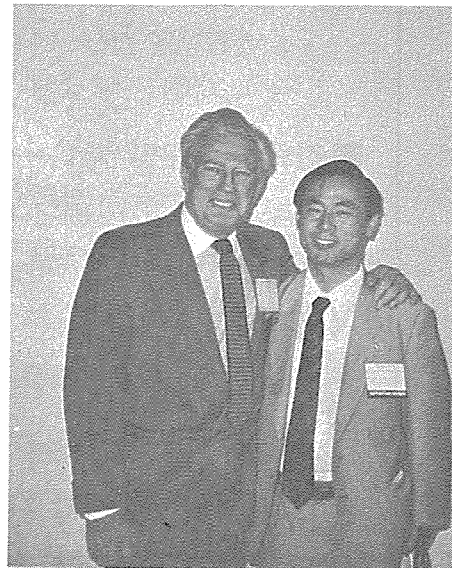
수많은 table clinician들과 같이 직접 2시간 동안 발표요구

자에게 설명했다. 처음부터 Fibrointegration으로 유명한 Dr. Weiss가 와서 나의 Presentation을 요구해 설명을 했더니 유심히 듣고 금년 말까지 영어로 작성하여 보내주면 자기가 best를 다해서 미국 잡지에 게재해 주겠다고 했다. 그 밖에 여자치과의사들, 재미 한국치과의사, 하버드 치대 대학원생등이 발표를 요구해와 설명했다.

사실은 이 Table session이 간단한 임상술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것 같았다. (스크린, 한개 Projector를 준비해 준다) 토요일 학회를 끝마치고 나는 1시부터 배 창교수와 함께 미시시피강의 늪지대를 관광선을 타고 Swamp tour를 갔었다.

그곳은 많은 고목과 자연이 그대로 보존 되어 있고 악어 새끼들이 먹이를 던지면 배를 향해 다가와 흥미 있었다.

10월 7일 새벽 5시에 일어나 7시 비행기를 타고 멤피스, LA를 거쳐 10월 9일 8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해 9박 10



▲Dr. Linkow와 함께

일간의 공무국의 여행을 마쳤다.

이번 여행에서 아쉬웠던 것은 공직자라 세금 관계로 재료를 사올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우리나라에서 대리점을 통해 사면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걸 알 수 있었다. 개업의는 미국에서 직접 사면 학회참석비. 여비보다 더 많은 경비가 절약될 수 있

을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한국인 참가자(준칭 생략)로는 정소영, 노철진, 구창서, 배 창, 서규원, 이원철, 최치갑, 양재호, 이태호, 이종진, 이유식, 정주성씨등 15명이 참가했다. 미국에서 개업의 1명과 로마린다대학의 소선생도 왔었다.

참고로 1991년엔 10월 13일에서 18일까지 Chicago Hyatt

Regency Hotel. 1992년엔 10월 12에서 17일까지 미국 Orlando에서 AAID Metting이 열린다.

이 Orlando는 필자가 1988년에 방문한 바가 있는데 Magic Kingdom과(Disney land와 같은 곳), 유명한 Epcot Center라는 방대한 과학전시관이 있는 환상적인 호수가 많은 미국 서남부 도시로 꼭 가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저희 도서출판 **현대의학사**에서는 1990년에 개정된 보험수가가 게재된 모든 보험청구양식을 갖추고 원장님의 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환자진료용 기록부

- 일반환자용 : 1,500원 (권당 100매)
- 보험환자용 : 1,500원 (권당 100매)

■ 진료비 청구서

- 총 청구액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양식 ₩ 1,000원 (권당 50매)

■ 진료비 청구명세서

- 정액제 : 1,300원 (권당 100매)
- 정율제 : 1,300원 (권당 100매)

■ 처방전

- 의·약 분업에 따른 처방약전을 기록하는 양식 ₩ 2,500원 (권당 50조)

■ 진단서

- 일반진단서) 1,500원 (권당 50매)
- 상해진단서)

■ 진찰권

- 附 : 구강 및 치아의 건강수첩
- 500부 : 35,000원
- 1,000원 : 65,000원



도서출판 **현대의학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간행기관)

☎ 266-8398  
277-8867

100-282  
서울·충구 인현동 2가 193-30 (신성상가 504호)